

## 병을 통해 찾은 인생의 참의미 혹은 새롭게 디자인되는 인생

어린 시절의 기관지천식으로 시작해, 자라서는 눈가의 땀샘이 막히는 한관종과 쉽게 말해 코 중앙의 칸막이가 휘어진 비중격만곡증, 흔히 이명이라 부르는 귀울림, 그리고 성대출혈과 위염, 장 경련, 거기다가 오래도록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던 허리, 침과 부항과 뜸이 떠날 새가 없었던 발목, 아이를 가지고는 자궁근종과 전치태반 그리고 오른쪽 손목의 건초염과 왼쪽 엄지손가락의 부분적인 인대 파열로 인한 두 번의 집스.

내 마흔다섯 해 동안의 대표적인(?) 병명들이다. 이렇게 한꺼번에 끄집어내니, 열이 펄펄 나 정신없이 앓고 일어난 후의 텅빈 듯 하면서도 개운한 느낌이나 무언가 필요 없는 것들이 빠져나간 듯한 조금은 가볍고 감미로운 기분과는 전혀 다르다. 가만 생각해 본다. 내 인생에서 병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함정이나 복병 같은 병은 과연 우리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필립 시먼스는 서른다섯에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에 걸린다. 루게릭병은 근육이 위축돼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원인 불명의 불치병으로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도 이 병을 앓고 있으며,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의 모리 슈위츠 역시 루게릭병 환자였다. 1만 미터 이상의 산봉우리 마흔 아홉 개를 올랐던 그는 이제 '날마다 부서지는' 몸으로 바뀌 달린 의자에 앉아 있으며, 아무리 기빠도 더 이상 두 팔을 들어올릴 수 없다.

열두 편의 에세이를 모아 놓은 《소멸의 아름다움》에서 그는 일관되게 '낙법 배우기(Learning to Fall : 책의 원제이기도 하다)'를 이야기한다. 꿈의 상실과 좌절, 체력 저하와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이 모든 것이 '떨어짐falling'이며, 우리 모두가 이

미 경험해 온 이 떨어짐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없고 또 언제 올지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떨어짐을 배우고 실천하는 방식은 내버리기, 받아들임, 고독, 침묵, 놓아버리기, 영성靈性, 무위無爲의 기술이라고 정리한다. 그는 자신의 종교에 대한 접근 방식이 절충적이고 포괄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덕분에 기독교나 불교나 카톨릭 등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폭이 넓고 편안하다.

인생의 절정기 초입에서 맞닥뜨린 병 앞에서 그는 놀라울 정도로 깊어지며 한없이 넓어진다. 병과 죽음 앞에서 주저앉으며 무너져 내리는 대신 자신의 자리를 자기 내면에 만들고는 생각을 완숙하게 익혀 나간다. 생각의 깊이와 폭에다가 사람에게서 솟아나는 사람과 자연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그 완숙함은 절로 향기를 풍긴다. 땅을 똑바로 걷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은 그는, 자신의 힘으로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아침마다 일어난다며 우리가 갖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인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것을 자신의 경험을 담아 당부한다.

병은 그의 인생을 다시 디자인했다. 우선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하도록 했고, 원래 가지고 있던 영성추구의 심성을 심화시켰으며, 친구와 이웃의 사랑과 보살핌을 질게 체험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주었다. 그러니 생에서 잃은 것과 얻은 것을 따지는 것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인지. 바다까지 '떨어짐'을 배운 자만이 가득찬 인생을 누린다.

《두 번 태어나다》에서 '나'의 아들 파올로는 태어날 때 제왕 절개 수술시기를 놓쳐 겸자(鉗子: 분만할 때 태아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기구)로 머리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뇌가 손상돼 '경련성경



증사지마비' 를 얻게 되고, 언어장애와 보행장애를 갖게 된다. 이 아버지는 아이의 장애에 대한 죄책감과 병에 대한 초기의 무지함, 부모로서 아이의 장애를 지켜보며 받아들여야 하는 답답함과 고통, 아이의 형을 비롯한 가족들의 혼란과 갈등, 그리고 치료와 재활과 교육을 맡은 병원과 학교에 이르기까지 장애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여러 상황을 교차하며 이야기를 엮어나간다.

독특한 것은 일정한 줄거리를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대화를 통해 독자가 이야기의 아귀를 맞춰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떠오르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식의 흐름을 아무 설명 없이 그대로 적어 놓았는데, 전체 이야기 구성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오히려 이 부분이 책 읽는 맛을 더해준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그것을 반복하기 위한 최선의 알리바이이기도 하다." "장애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약자弱者는 어떻게 하면 힘을 덜 들이고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미리미리 알아서 스스로 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수백만 년에 걸쳐 우리 몸에 새겨진 모든 움직임의 정보를

10년 안에 머리로 익혀 몸을 움직

여야 하는 장애아들이 이 과정을 거쳐 세상에서 두 번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애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의 약함을 제대로 보게 될 때 우리 역시 두 번 태어난다고 '나'는 말한다. 장애를 지닌 아이의 존재를 통해 다시 태어난 자신을 받아들여졌노라 털어놓는 것을 보면, 변호사였던 파올로 외할아버지의 노화로 인한 '견망성 실어증' 과 아버지인 '나'의 일시적인 언어장애 역시 파올로의 장애와 일직선상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태어나 나이 들고 늙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몸과 마음의 정상과 장애라는 것 역시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 다만 건강하고 소위 정상이라고 여기는 우리 자신만이 그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잊고 살아간다.

《내 신발이 어디로 갔을까?》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면

### 이 글을 쓴 유경은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화여대 시청각교육과를 졸업했으며 7년간

기독교방송국 아나운서로 일하면서

노인 방송을 통해 노년의 삶을 보기 시작했다.

이후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노인 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분석>으로

석사 학위를 받으면서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복지과장으로 일했고,

현재는 '어르신사랑연구모임(<http://cafe.daum.net/gerontology>)'을

운영하며 노인대학과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중이다.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와 여성신문에 <유경의 녹색 노년>을 연재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꽃 저 너머 푸르기도 하여라>(서해문집, 2003)가 있다.



서 딸이 써 내려간 기록이다. 아버지가 치매진단을 받은 후 자신이 아버지의 부모가 됐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으로 모셔와 돌봐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탁노소(託老所 : 낮 동안 허약한 노인들을 돌봐 드리는 시설, 주간보호소라고도 함)'를 거쳐 '노인전문 요양시설'로 옮겨가게 되는 과정을 때론 눈물로 때론 웃음으로 적어나가고 있다. 어떤 소설이 이보다 더 드라마틱할까? 그런데 치매 아버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보통의 미국 가정과 달리 집 안에서 신발을 벗고 지내는 딸의 습관이었다. 집 안에서 신발 벗는 일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치매 아버지는 아침이고 저녁이고 날이면 날마다 물으신다. "내 신발 어딴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면서도 아버지의 신발을 끝까지 내드리지 않는 브렌다 부부,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이유를 한번 물어보고 싶다.

놀라운 것은 브렌다가 전쟁을 치르듯 살면서도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고립된 개인으로 아버지의 병에 대응해 나간 것이 아니라 '치매가족 모임'에도 참여하고 자신의 처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자세히 알려 친지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격려로 아버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다는 점이다. 여든여덟 아버지가 비록 자신을 알아보는 못해도 이 세상에 계셔 주셔서 행복하다는 딸은, 동시에 인생의 마지막을 치매환자로 살아가야 하는 삶은 대체 어떤 것인가를 묻는다. 그것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 번뿐인 인생. 그 마지막 길모퉁이에서 치매를 만나 자기 안에서 무엇인가 허물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점점 희미해져 가는 자기 자신을 안간힘을 다해 부둥켜안고 너무도 힘겹게 시간을 보내는 존재들. 그들이 찾고 있는 진짜 신발은 과연 무

엇이며, 그 신발은 정말 어디에 있는 것일까. 또한 그 신발을 찾아 신고 그 분들이 떠나실 곳은 또 어디일까.

자신의 병을 통해 인생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은 필립 시먼스. 똑바로 걸으라는 아버지의 말에 "창피하면 나한테서 조금 떨어져서 가도 돼. 내 걱정 말고." 큰 소리로 말하는 파올로. 아버지의 치매를 넘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묻고 있는 브렌다. 이들은 그들이 동시에 우리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성숙할 시간을 얻곤 하지만 바보같이 늘 놓치곤 한다. 그러므로 병의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처럼 정상이 되기보다는 그저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우리를 울린다. 우리는 언제쯤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